

광양, 내년 예산편성 현안 중심 ‘선택과 집중’

지방세·지방교부세 등 주 세원 감소…재정난 지속 예상

국·도비 지원사업에 주력…도로개설 등 SOC 시기 조정

광양시가 세원 감소로 어려워진 내년도 재정운용을 ‘선택과 집중’에 두고 중점 현안사업에 투입하는 방향으로 예산편성에 나선다. 18일 광양시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편성을 시민 체감형 사회복지예산과 소상공인 지원, 신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에 우선 투자한다. 또 현재 추진 중인 도로개설, 도시개발사업, 관광개발 사업 등 현안사업은 선택과 집중으로

공정에 맞춰 순차적으로 예산투입을 해나갈 방침이다. 시가 이같은 재정운용 방식을 도입하게 된 것은 지방세, 지방교부세 등 주요 세원 감소에 따른 재정난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시는 본예산 편성 기준 2022년 2084억원이던 것이 3년이 지난 2025년 1691억원으로 393억원이 감소했고, 시의 가장 큰 세원인 지방

교부세도 2022년 3264억원에서 2025년 2804억원으로 460억원이 감소했다. 또 부동산교부세도 경기 불황으로 2022년 266억원에 달하던 것이 2025년 120억원으로 146억원이 감소하는 등 자주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세원이 전반적으로 크게 줄었다. 시는 이를 만회하기 위해 국·도비 지원사업에 주력하고 있지만 시비 대응비율이 39%를 넘고 있어 재정 압박을 가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올해 시의 국·도비 사업은 총 1909건에 5961억원으로, 국비 2594억원과 도비 1041억원에 시비 2326억원이 매정됐다. 광양시 관계자는 “어려운 재정 상황에 법적 의

무적 경비, 국·도비 매정을 하고 나면 가용재원이 부족해 시 중점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올해와 같은 재정 상황은 내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판단돼 내년도 본 예산 편성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현안 사업의 선택과 집중, 도로개설 등 SOC사업의 시기 조정 등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올해 세원부족으로 지난 2월 3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으며, 지난 10월에도 의회 의결을 거쳐 추가로 15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게 됐다. 광양=김귀진 기자 lkkjin@gwangnam.co.kr



곡성물 ‘정 담은 김장 대전’ 내달 10일까지 김장 재료 등 20% 할인

곡성군은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12월 10일까지 온라인 쇼핑몰 ‘곡성물’에서 ‘정 담은 김장 대전’ 기획전을 진행한다. 이번 기획전은 김장 재료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해 소비자의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절임배추와 김장용 배 등 핵심 재료는 물론, 김장김치를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는 곡성 삼겹살·한우, 곡성 쌀로 만든 막걸리가 다양한 품목이 준비돼 있다. 할인 혜택은 곡성군 할인 10%와 입점업체 자체 할인 10%가 합산돼 최대 20%까지 적용된다. 이번 행사에는 곡성무지개, 통명산숫대마늘, 곡성축협, 시향가, 가시버시농원 등 5개 업체가 참여한다. 기획전 참여 고객에게는 1인당 2매의 할인쿠폰이 지급되며, 쿠폰 1매당 최대 3만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예산 소진 시 기획전은 조기 종료될 수 있다. 곡성군은 이번 기획전을 통해 김장 재료부터 김장 후 가족 식탁용 식품까지 한 번에 구매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면서 지역 농가 판로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곡성물 관계자는 “김장은 한 해의 식탁을 책임질 김치를 준비하는 큰 행사”라며 “곡성물이 엄선한 신선한 재료들이 소비자의 김장 준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정렬 기자 holbul@

여수 거문도 수월산 일원 자연유산 지정

경관·생태·역사·학술 등 가치 뛰어나
국가유산 연계 해양 생태관광 활성화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닌 ‘여수 거문도 수월산 일원’이 최근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자연유산(명승)으로 최종 지정됐다. 이번 지정으로 여수시는 기존 명승인 산백도·하백도 일원(1979년 지정)과 금오산 향일암 일원, 영취산 흥국사 일원을 포함해 총 4곳의 명승을 보유하게 됐다. 이는 여수가 가진 해양·산악 경관의 가치를

국가적으로 다시 한번 인정받은 의미 있는 성과다. 여수 거문도 수월산 일원은 경관·생태·역사·학술 등 가치가 뛰어난 곳으로 평가됐다. 목념이를 지나 거문도등대로 이어지는 탐방로는 울창한 동백나무숲과 어우러진 기암괴석 해안 풍경과 낙조 경관이 장관을 이룬다. 특히 거문도등대와 관백정 일원은 웅장한

일출과 백도의 모습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어 해양 경관 가치가 뛰어나다. 또 탐방로를 따라 동백나무, 돈나무, 다정금나무 등 남부 해안의 다양한 식생이 잘 보존돼 있으며 흑비둘기 등 희귀 조류가 서식하는 등 생태학적 가치도 우수하다. 아울러 거문도는 예로부터 남해 방어체계의 중심이자 전략적 요충지였으며, ‘거문도 사건’ 등 근대 해양사와 국제 정치사의 주요

흔적을 지닌 장소로 역사·학술적 가치 또한 인정받았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명승 지정은 여수 해양 자연경관의 탁월한 가치를 국가적으로 인정받은 뜻깊은 성과”라며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와 연계해 글로벌 섬 생태탐방 벨트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국가유산 기반의 관광 인프라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순천, 유기질비료·유기농업자재 지원

연말까지 접수…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 확산

순천시가 농가의 경영부담을 줄이고 친환경 농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나선다. 18일 순천시에 따르면 2026년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을 12월 12일까지,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을 다음달 31일까지 접수한다. 신청 자격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 신청서는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전자우편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과 부속유기질비료 2종(가축분퇴비, 퇴비)의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시는 지역 내에서 발생한 축분을 재료로 생산하는 지역 내 제품에 대해 추가로 300원을 지원

함으로써 제품 소비를 촉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내 제품을 사용할 경우, 농가는 비종과 등급에 따라 포당(20kg 기준) 최대 21,000원까지 차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은 친환경 인증(유기농, 무농약)을 받은 농가에 유기농업자재 및 녹비종자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ha당 최대 200만원까지 자재 구입비를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유기질비료를 적기에 사용하지 않고 도로 등에 장기간 적치하는 행위는 통행 불편과 환경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농가에서는 이를 삼가 할 것을 당부드린다”며 “두 사업 모두 기간 내에 신청해 농가 경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순천=박철석 기자 2556pk@

고흥 축섬, 디지털 기반 관광콘텐츠 강화

누리집 전면 개편…태블릿·모바일 등 최적화

전남 제1호 민간정원으로 알려진 고흥군 축섬이 누리집을 전면 개편하며 디지털 기반 관광 콘텐츠를 강화했다. 이번 개편은 관광객의 편의성과 몰입도를 높이고 축섬의 감성적 브랜드와 특징을 온라인에서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추진됐다. 새롭게 구축된 누리집은 반응형 디자인을 적용해 PC, 태블릿, 모바일 등 다양한 기기에서 최적화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한다. 또 방문객이 필요로 하는 입장료, 위치, 교통, 운영시간 등 필수 정보를 중심으로 콘텐츠를 재구성했으며, 자주 묻는 질문과 AI 챗봇 ‘축섬지기봇’을 통해 실시간 소통도 강화했다. 특히 축섬의 주요 탐방 지점을 중심으로 제작된 지도 이미지에 오디오와 텍스트 해설을 결합한 디지털 도슨트 콘텐츠를 제공해 방문객의 탐방 경험을 한층 높인다. GPT 기반 자연어 응답형 AI 챗봇을 도입해 여행 정보와 계절별 추천 볼거리, 이용 팁 등 다양한 질문에 실시간으로 대응하며, 축섬 풍경과 정서를

담은 시각 콘텐츠와 정기 카드뉴스를 통해 자연과 감성을 지속적으로 전달한다. 아울러 외국인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 영문 페이지도 새롭게 추가했다. 이번 개편은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를 통해 축섬의 자연 정원과 섬을 가꿔온 운영자의 진정성을 반영한 디자인과 콘텐츠는 방문객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것으로 기대된다. 축섬 관계자는 “디지털 전환을 통해 축섬의 아름다움과 철학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고자 한다”며 “온라인에서도 축섬의 감성과 힐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확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올해 고흥군의 지원으로 축섬 도선이 1대 증선돼 총 2대가 운영되면서 지난해 6만6751명이었던 승선객 수가 올해는 지난 12월 기준 8만4112명으로 증가해 지역관광과 경제 활성화에 뚜렷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gwangnam.co.kr



전남 제1호 민간정원으로 알려진 고흥군 축섬.

보성 채동선실내악단, 창작 액터뮤직 공연

보성 채동선실내악단은 창작 액터뮤직 작품 ‘Song of 동물음악대’를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채동선음악당에서 총 3회 공연한다. 이번 공연은 27일 오후 2시 30분과 7시 30분, 28일 오후 7시 30분 진행된다. ‘Song of 동물음악대’는 보성 출신 민족 작곡가 채동선의 음악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지역 창작 프로젝트로, 채동선실내악단이 전남을 기반으로 직접 기획·제작한 작품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역예술도약지원사업의 후원으로 제작돼 지역 연주자 중심의 ‘문화자립형

창작 예술’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작품은 생상스의 ‘동물의 사육제’와 한국 작곡가 이영조의 ‘동물음악대’를 모티브로 삼아, 서양 클래식 구조미와 한국적 정서를 결합해 만든 창작 음악극이다. 전쟁과 파괴가 없는 ‘평화의 나라’를 찾아 나선 동물들의 여정을 통해 인간 사회의 갈등, 자연과의 공존, 예술의 치유력이라는 메시지를 상징적으로 담아냈다. 특히 이번 작품은 배우가 아닌 전문 연주자들이 직접 연주와 연기를 동시에 수행하는 새로운 형식의 공연이다. 보성=임태형 기자 limth66@

정남진장흥토요시장, 23일까지 수산물 은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장흥군은 오는 23일까지 정남진장흥토요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소비 촉진과 함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수산물에 대한 은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실시한다. 소비자들은 국산 수산물 구매 시 최대 30%를 할인받으며, 1인당 최대 2만원 한도 내에서 은누리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은누리상품권 환급은 참여 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매후 영수증을 지참하고 환급장소인 상설시장 내 고객심터를 방문하면 환급 받을 수 있다. 금액별 환급액은 3만4000원 이상 구매 시 1만원,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원이며 환급 가능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김성 장흥군수는 “이번 수산물 소비 촉진 행사가 군민들의 가계 부담을 줄이고 정남진장흥토요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은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 군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장흥=정영수 기자

구례, 인구정책 가이드북 발간 읍·면사무소 비치…휴대성 강화

구례군은 군민들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인구정책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최근 ‘구례군 인구정책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가이드북은 임신·출산, 영·유아, 아동·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공통 7개 분야 등 등 174개 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별도의 분야별 색인을 포함해 인구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혜택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각 정책의 지원 내용은 물론 신청방법과 문의처까지 구체적으로 안내해 실질적인 활용도를 높였다. 군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필요한 정보를 즉시 찾을 수 있도록 구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모바일북 형태의 구례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열람도 가능함과 동시에 손에 들고 다닐 수 있는 소책자 형태로 제작해 실용성과 휴대성을 강화했다. 가이드북은 읍·면사무소에 비치되며, 구례군의 인구정책 안내 및 홍보를 하는데 활용될 예정이다. 김순호 군수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책 제공으로 지방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례=김귀진 기자 lkkjin@